

유보통합 안정적 운용 인력 보강 만전

전북교육청, 6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배치... 일반직도 내년 배치키로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 협의회 개최... 인력관리·운용 방안 협의

유보통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인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 협의회를 열어 증원 인력관리 및 운용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은 2023년 발족, 그동안 지자체에

서 교육청으로의 이관 대상 업무 분석 및 수행인력 규모 파악, 국고 대응투자자와 지자체 특색 사업 이관 여부 및 범위 결정,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등에 힘써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인사·조직담당 내부위원, 14개 교육지

원청 교육장,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력 증원 배치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9월 1일자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 고창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장학사)을 배치하고, 일반직(행정직)은 2026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

이다.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보육업무 이관을 담당할 인력 4명을 지자체에 파견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보통합을 담당할 인력은 앞으로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영유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RISE 통합돌봄 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3일 전북형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MOU 체결식을 통해 전북지역 10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20개 사회복지 직능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범 지역적 협력 플랫폼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 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범 지역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RISE 통합돌봄 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3일 전북형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MOU 체결식을 통해 전북지역 10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20개 사회복지 직능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대, 전북형 통합돌봄 전문 인력 양성 MOU 체결

도내 10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전북사회서비스원 등 맞춘

이에 따라 참여 대학 및 기관들은 전북대 RISE 사업단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인력양성 과제 공동 개발 및 운영에 함께하고, 더불어 스마트 돌봄 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 통합돌봄 분야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안, 네트워크 기반 거버넌스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RISE 통합돌봄 인력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교육·연구·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북형 통합돌봄 인재양성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규형 책임교수는 “전북은 돌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며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관이 함께 스마트 돌봄 기술을 접목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명숙 대외취임부총장은 “전북대가 RISE 사업을 통해 아동과 장애인,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범지역적 스타트를 끊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형 통합돌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모로코 현장 연수로 아프리카 연구 교두보 마련

전북대, 라바트 등 찾아

학술교류·문화탐방 나서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희립)가 학문 후속세대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헌 중심의 연구를 넘어 현장 기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동시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수에는 박사과정 1명, 석사와 정 2명, 학부생 3명 등 총 6명이 참여,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라바트, 마라케시, 에사우이라, 카사블랑카 등 주요 도시에서 각자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현지 학자, 대학생, 기관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특히 라바트 주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 사무소를 방문해 양국 청년·문화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가 인문한국 3.0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문후속세대 모로코 현지 연수를 가졌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교류 정책과 개발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Moroccan Institute for the Global South에서 ‘모로코 MZ세대와 대중문화’를 주제로 현지 학자 및 대학생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에사우이라 메디나를 비롯한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개별 연구 주제

에 맞춘 조사를 하며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조희립 소장은 “이번 연수는 문헌 중심의 탐구를 현장 기반의 문제의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현장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향후 MOU, 공동연구, 학생 교류 등으로 이어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 맞춤형 식생활 교육 참가학교 모집

전주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는 지역형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내 초·중·고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공식품 소비 증가와 불균형한 식습관 문제를 예방하고,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미래 식품 인재 양성과 연계한 체계적인 식생

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교육 과정은 △초등학생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재료 탐험과 마작·영양 체험 △중학생은 개인 체질과 영

양에 기반한 맞춤형 영양교육 개발·보급 △고등학생은 학교 기반 급식 영양 교육과 힐링 영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모든 과정은 전주대학교가 자체 제작한 교육 키트를 활용,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xzldqSY>)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체 모집인원 74.5% 선발... 글로벌사업으로 단위 광역화

첨단분야 모집 단위로 이차전지공학과 등 2개 학과 신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8~12일 오후 7시까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통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4,429명) 중 74.5%인 3,301명을 선발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906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257명, 예체능 실기 135명 등이다. 특히 의과대학은 전년도 수시 모집 인원 103명보다 17명 감소한 86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80%)와 면접 점수(2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전형에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전형

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 80%와 정성평가 2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예체능-실기 전형은 학생부와 함께 실기고사 점수를 반영해 선발한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도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따른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계열중심의 모집단위 광역화는 지난해 입시부터 실시된 것으로, 기존 공과대학은 공학계열 1?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업생명과학계열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계열로, 경상대학은 경상계열로 모집하는 등 기존 106개 모집단위가 46개로 통합?운영된다. 이 밖에도 첨단분야 모집단위로 이차전지공학과와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됐다.

또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 감점기준에 따라 환산총점에서 감점 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4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회 전국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협의회’가 열렸다.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 전주에 모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개최

교육 현장 안전보건 업무 공유·해결책 모색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가 전주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회 전국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회는 교육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 모색 마

련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주최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재해 통계 처리 기준 통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제의 적용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공동 위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은성 기자

‘미래 여는 리더십,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

전북교육청, 19일 ‘2025 IB 리더십 4차 특강’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5 IB 리더십 4차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리더십,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특강은 글로벌 교육 트렌드와 IB 프로그램의 철학, 학교 리더가 갖춰야 할 역할과 비전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강사로는 대구북현중학교 최진아 교장이 참여한다. 최 교장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IB 정책을 이끌며 미래교

육을 선도해 왔으며, 현재 IB MYP 월드스쿨인 대구북현중학교의 글로벌 교육을 선도해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다.

이번 강연에서는 △IB 프로그램의 철학, 학교 운영 △IB가 교사와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학교 리더가 직면하는 도전과 극복 과제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교직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은 오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6일 북토크 개최

엄유진 작가·엄성우 교수 초청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태)은 오는 6일 오후 2시 문화관 본관 2층 시청각실에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북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이란 이름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북토크에는 웹툰 ‘편지이세돌’로 잘 알려진 엄유진 작가와 엄성우 교수가 함께한다.

엄유진 작가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진솔

한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그림 세계를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또 엄성우 교수는 미국 듀크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서울대학교에서 도덕철학과 윤리학을 연구·강의하고 있다.

특히 남편인 두 사람은 삶을 ‘정거장’에 빗대어 다른 존재들이 머물다 가는 자리, 방향 끝에 돌아오는 좌표 같은 공간, 주파수가 어긋나는 기다림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가족의 의미를 진솔하게 전달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